

7월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피해 조사 등 조속한 일상회복에 역량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4일 06시부터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임진강 댐송교의 수위도 안정권으로 유지됨에 따라 금일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대응 체제는 종료하지만,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즉시 「복구대책지원본부」체제로 전환·가동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사유·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앞으로의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5310)
		담당자	사무관	이종섭 (044-205-5311)